

해 외 정 보

브릿지스톤사, 세계 최대 타이어 제조

400톤의 하중 한계를 가진 초대형 6륜 덤프 트럭의 다음 세대를 위해 브릿지스톤사가 개발한 세계 최대 사이즈의 타이어가 올 봄에 출시될 예정이다.

광공업에 종사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한 이 거대 래디알 타이어는 높이가 13피트 2인치(4.02미터) 이상이고, 너비가 4피트 10인치이며 무게가 5톤이 넘는다. 이는 100톤 이상의 명목상의 하중비율을 가지는 첫 번째 타이어이다.

이 타이어는 주로 북미, 남미, 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 판매될 것이다.

59/80R63 V-Steel E-Lug S라는 이름의 이 타이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전체적으로 높은 내구성을 제공하기 위해

서 새로운 벨트 패키지와 새로운 비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새로운 벨트 패키지는 타이어의 cut 손상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트레드 구성화학 성분으로 내마모성에 있어 크게 향상되었다.

도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타이어 제조사인 브릿지스톤사는 지름 57인치 이상의 off-the-road 타이어 세계 시장의 60%를 점하고 있다.

이 59/80R63 V-Steel E-Lug S는 예전에 브릿지스톤사가 만들었던 당시에 가장 큰 타이어 55/80R63 보다도 높이가 4인치, 너비가 3.6인치 가 더 크다. 이 새로운 거대 타이어는 일본의 시모노세키 브릿지스톤사 제조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자료 : 영국 「Tyres & Accessories」 3월호〉



세계 최대의 타이어(높이 13피트 2인치). 옆의 브릿지스톤 Formula One type(지름 2피트 1인치)와 한여섯(키 5피트 4인치)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보인다.

Continental사와 Yokohama 고무사, 합작 투자 계약 체결

콘티넨탈 AG사와 요코하마 고무사가 일본 카메라커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기 위한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그 계약에 따라 새로 신설될 회사는 일본시장에서 콘티넨탈사의 교체용 타이어 판매 증가에 일조 할 것이다. 콘티넨탈사와 요코하마사는 또한 양사의 기술 교환에 동의했다. 양사의 이번 계약의 체결은 세계 타이어업계에서 독일과 일본의 타이어메이커 사이에 긴밀한 협조 조성을 목적으로 양사가 의향서에서 명했던 지난해 6월 이후부터 추진되어왔다.

3월말에 요코하마사와 콘티넨탈사는 도쿄에서 총자본 1억엔(85만 유로)의 50:50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할 것이다. ‘요코하마 콘티넨탈 타

이어사(Yokohama Continental Tire Co.,Ltd.)'란 이름으로, 이 신설 합작회사는 승용차, 경트럭 그리고 트럭버스의 신차용 타이어를 일본의 카메이커와 그들의 해외 자회사 그리고 한국의 카메이커에 판매할 예정이다.

계약의 규정에 따르면, 이 합작회사의 이사회는 요코하마사와 콘티넨탈사에서 각각 2명을 선발하여 모두 4명으로 이루어 질 것이며 요코하마사 이사회의 이사이자 신차용 타이어 판매 부문의 총감독인 Keigo Ueda씨가 사장으로 그리고 콘티넨탈사의 Michael Berger씨는 부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요코하마 콘티넨탈 타이어사는 나고야, 오사카 그리고 히로시마에 지사를 두고 미국과 독일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요코하마사는 일본에서 콘티넨탈 타이어의 독자적인 수입/공급사가 될 것이다. 요코하마사는 또한 자사 교체용 타이어의 전국적 판매망을 통하여 산업 자동차용 타이어 뿐만 아니라 승용차용의 콘티넨탈 브랜드와 독일 회사들의 그외 다른 주요 브랜드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콘티넨탈사는 이들의 타이어 판매 촉진을 위해서 요코하마사에 마케팅 전문가를 파견할 것이다.

지난해 6월 의향서에서 동의한 대로 양사는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 지역에서의 긴밀한 협조를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양사간 제품 명세서의 통일, 생산 아이템의 교환과 제품 판매 공조를 포함한 QCD(Quality Cost and Delivery : 품질, 비용, 배송) 향상책에 대한 구체적인 협조를 타진할 예정이다.

Apollo 타이어서 TN프로젝트 잠시 연기

인도의 Apollo 타이어사는 '시장이 준비가 될 때'까지 트럭 래디알 타이어 공장 투자를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도주 Tamil Nadu의 정부관리는 Apollo 타이어사가 45억 루피의 트럭 래디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Sriperumbudur 근처 부지를 선정했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Apollo사의 기술적 공조사인 독일의 콘티넨탈 AG사와의 연계속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Apollo사는 콘티넨탈 AG사와의 공조아래 그들의 조언을 얻으면서 최초 '파일럿 프로젝트'에 약 2십억 루피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 파일럿 프로젝트에 따라 18-24개월 안에 트럭 래디알 타이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인도에서의 4개 공장은 완전가동을 하고 있어서, 2십억 루피 중 일부분은 또한 생산설비의 규모를 늘리는데 사용될 것이다. 이 결정은 1월 28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우리는 설비 투자를 베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로써 Tamil Nadu는 명확히 선두주자이다."라고 Apollo사의 사장인 Sunam Sarkar씨는 말했다. "트럭 래디알 타이어를 제조하는 것은 복잡한 기술을 수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테스트 모듈을 만들고 인도 타이어 시장을 겨냥한 독특한 타이어를 개발하기 위해 조언을 받았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Runflat 타이어

Runflat 타이어,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 그리고 광대한 기술적 진보는 타이어업계의 미래에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Goodyear사의 회장이자 수석 경영관리인 Sam Gibara씨는 말했다.

업계 리더와 고위 간부들의 포럼인 J.D. Power International Automotive Rountable에서 주요 연설자인 Gibara씨는 자동차운전자와 자동차메이커를 향하여 자신이 정한 "a growing renaissance of tyre appreciation(타이어 가치 인식의 르네상스)"란 용어에 대해 알렸다. "둥글고 검은 것을 뛰어넘어 - 과학과 혁신의 발자취"라는 표제가 붙은 그의 연설에서 Gibara씨는 굿이어사가 runflat 타이어와 타이어 공기압 경

고장치의 개념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어사는 2003년 말까지 타이어 온도와 공기압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경고 표시 장치 제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개념은 굳이어사의 runflat 기술과, 타이어와 자동차가 서로 교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전자 기술을 결합한다.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착타이어 정보와 센서 기술의 심층 연구를 위해 굳이어사는 Siemens VDO Automotive, Cycloid 그리고 Phase IV Engineering과 기술적 협의를 시작했다.

굳이어사의 runflat 타이어를 장착하면 펑크 난 채로 200마일까지 55mph의 속도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 굳이어사의 runflat 타이어와 저공기압 알림표시판은 Chevrolet Corvette와 Chrysler Prowler에서의 기준이다. Gibara씨는 굳이어사가 새로운 Mini Cooper와 3 series를 위한 BMW와 GM, DaimlerChrysler에 기동성 확대 타이어인 자사의 EMT를 공급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50여가지의 여러가지 모델을 가지고 8개의 주요 자동차 회사에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면서, 굳이어사는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runflat 타이어의 공급 면에서 세계의 선두주자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Gibara씨는 굳이어사가 기술적인 미개척분야를 탐구하는데 헌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노력은 카본블랙을 대체하는 바이오트레드(Biotred), a starch-based filler 재료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연구소인 Sandia National Laboratories와의 독자적인 공동 연구 개발의 협의와 경쟁력 있는 우레탄 타이어 화학물질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둔 Amerityre 사와의 독자적인 협의를 포함한다.

Goodyear사 필리핀 공장 폐쇄

설비과잉과 수요감소를 언급하면서 굳이어사는 최근 필리핀 Marikina 주재 공장의 폐쇄를

발표했다. 175명의 인원과 하루 약 1,200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던 그 공장은 2월1일 생산을 중단했다.

굳이어사의 아시아 지역 타이어 제조부문 이사인 Harold Smith씨는 그 공장을 살리려는 노력은 실패로 끝났으며 필리핀 타이어 시장은 애초 기대했던 만큼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mith씨는 또한 그 시장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의 값싼 수입제품이 밀려들어와서 경쟁이 심했었다고 지적했다. Smith씨에 따르면 굳이어사는 Las Pinas 주재 필리핀의 다른 공장에서 타이어를 만들어 시장 수요를 계속해서 맞추어나갈 것이라고 한다.

지난 18개월간 세계 타이어 업계의 설비과잉은 미국 타이어메이커들로 하여금 아르헨티나,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멕시코에서 공장폐쇄를 유발했고 본질적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의 공장에서의 생산 감축의 원인이 되었다.

인도 타이어 수출 22% 증가

국내 타이어 생산(358만개)에서의 증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처음 9개월간 인도의 타이어 수출은 이전 회계연도 동기간의 19만 4천개에서 22% 오른 23만 8천개였다.

ATMA(Automobile Tyre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타이어 수요의 주된 부분을 차지 하던 트럭 버스 타이어의 생산이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의 타이어 수량 73만 3천개에 비해 4% 떨어져 70만개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기간의 트럭과 버스 타이어의 수출은 1년전 14만 3천개에서 4%가 올라서 14만 8천개가 되었다. 승용차 타이어 수출은 9개월간 놀랍게도 411%가 증가해서 22,660개가 되었다. 반면 타이어 생산은 57만 2천개에서 61만2천개로 7% 증가했다. 경 상용차 부분의 생산은 19만개로 7% 증가했다.

<자료: 인도 「Indian Rubber Journal」 3,4월호>